

# 스노보드 2관왕 이상호 “평창 자신감 생겼다”



남자 회전 1분 16초 09로 우승  
“이젠 세계선수권 시상대 도전”  
김상겸·여자부 신다혜 동메달

이상호(22·한국체대)가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첫 2관왕에 올랐다. 이상호는 20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의 데이네 뉴 슬러럼 코스에서 열린 스키 스노보드 남자 회전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 16초 09로 우승했다. 2위 스즈키 유야(일본)의 1분 16초 80을 0.71초 차로 따돌린 이상호는 전날 대회전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 첫 2관왕의 영예를 누렸다.

▶이상호가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첫 2관왕에 올랐다. 이상호는 20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의 데이네 뉴 슬러럼 코스에서 열린 스키 스노보드 남자 회전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 16초 09로 우승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4위에 오른 이상호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자신감을 높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전망을 더욱 밝게 만들었다.

김상겸(28·전남스키협회)은 1분 17초 42의 기록으로 3위에 올라 동메달을 획득했다. 앞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서는 신다혜(29·경기도스키협회)가 1분 26초 42를 기록해 역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첫 2관왕의 영예를 누리며 대회를 마무리한 이상호는 아시아 무대에서 적수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상호는 20일 경기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아시안게임 2관왕이 올해 목표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를 달성해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호는 이달 초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FIS 월드컵 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에서 메달권 진입이 기대됐지만 뜻밖에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이상호는 “그 결과를 자신감이 죽지는 않았다”며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된 그는 “아무래도 이전보다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솔직히 털어놓으며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신 부모님 생각이 먼저 난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귀국하는 이상호는 “한국에서 휴식하다가 3월 초 더거 월드컵, 스페인 세계선수권, 독일 월드컵 등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 2관왕으로 자신감이 생겨서 상승효과가 생길 것 같다”고 자신했다.

월드컵 메달 가능성에 대해 그는 “조금만 잘하면 딸 것 같은데...”라고 의욕을 내보이며 “사실 이번 시즌 목표였던 월드컵 4위는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남은 시즌에는 그 이상의 성적을 내고 싶다”고 다짐했다.

세계선수권에서도 시상대에 오르는 것이 목표라는 이상호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부담도 덜었고, 자신감도 생겼다”며 이번 대회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 0.00초차...김마그너스 금메달

스키 남자 크로스컨트리

한국 크로스컨트리의 간판 김마그너스(19)가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마그너스는 20일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키 남자 크로스컨트리 1.4km 개인 스프린트 클래식 결선에서 3분 11초 40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 쉐인하이(중국)와 100분의 1초 차이도 나지 않는 간발의 차이였다. 공식 기록에 1.2위 차이가 0.00초로 나왔을 정도의 접전이었다. 즉 0.01초 차이도 체 나지 않은 셈이다.

우리나라가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부에서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에는 남자 10km 박병철, 남자 계주와 스프린트 등에서 동메달을 딴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여자부에서는 2011년 대회에서 이채원이 프리 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노르웨이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연합뉴스

둔 김마그너스는 예선에서 3분 17초 29를 기록해 1위로 결선에 올랐다. 이후 4명씩 한 조로 뛰는 16강에서 3분 18초 87로 역시 1위를 차지했고 8강에서도 3분 17초 58, 역시 1위로 네 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했다.

지난해 동계유스올림픽 2관왕인 김마그너스는 올해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전망을 밝혔다.

김마그너스는 “잘 풀리지 않는 시즌이었는데 이번 우승으로 다 털어낸 것 같다. 평창 올림픽 입상은 기적과도 같은 일일 것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나”고 기뻐했다.

한편 여자부 주혜리(25·평창군청)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주혜리는 4위에 머물렀으나 3위를 차지한 캐시 라이트가 호주 선수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호주, 뉴질랜드 선수들은 ‘초청 선수’ 자격이라 메달 시상에서 제외됐다.



## 누나 봤지!

박승희 동생 박세영 금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박세영(24·화성시청)이 소치의 영웅인 누나 박승희(스피드스케이팅·스포츠포토)의 그늘에서 벗어나 ‘금빛 햇살’을 만끽했다.

박세영은 20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의 마코마나이 실내링크에서 열린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선에서 2분 34초 05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중국의 우다징(2분 34초 265)이 은메달을, 한국 남자 대표팀의 ‘말형’ 이정수는 4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한티안후(중국)가 실격 처리되면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세영은 그동안 어깨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시리즈에 나설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하는 아픔까지 겪었다.

하지만 자신의 복귀전인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따내며 활짝 웃었다.

박세영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작은 누나 박승희, 큰 누나 박승주와 동반 출전해 큰 화제를 불러모았다. /연합뉴스

## 靑신기록...이승훈·이상화 ‘희비’

이승훈, 빙속 5천m 金...이상화, 1천m 노메달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장거리 간판 이승훈(대한항공·사진)이 정강이 부상을 딛고 2017 삿포로아시안게임 남자 5,000m에서 아시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승훈은 20일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첫날 남자 5,000m 경기에서 6분24초32로 우승했다. 그는 2011년 1월 자신이 세운 아시아기록(6분 25초56)을 6년 만에 경신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첫 200m를 19초44의 준수한 성적으로 끊은 이승훈은 1,000m-1,400m 구간부터 속력을 높이며 순조롭게 달렸다. 그는 매 400m 구간에서 31초 이하의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쳤다. 특히 체력이 떨어지는 4,200m-4,600m구간과 4,600-5,000m 구간을 모두 29초대로 돌파하며 무서운 막판 스피트 능력을 보였다.

이승훈은 2월초 강릉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 팀 추월경기 도중 오른쪽 정강이를 베이는 부상을 입어 제대로 훈련하지 못했는데도 최고의 기록을 세우며 저력을 과시했다.

‘빙속 여제’ 이상화(스포츠포토)도 부상 투혼 속에 여자 1,000m 아시아 기록을 넘었지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이상화는 여자 1,000m에서 1분16초01를 기록하며 중국 장홍의 아시아기록, 1분 16초51을 넘어섰다. 하지만 1분15초19로 우승한 일본 고다이라 나옴을 넘지 못했다. 2위는 일본 다카기 마오(1분15초31), 3위는 중국 장홍(1분15초 75)이 차지했다. /연합뉴스



이상화는 200m구간을 17초60으로 주파해 18명의 선수 중 가장 앞섰다. 600m구간도 45초01로 전체 1위에 올랐지만 막판 스피트에서 속력이 떨어지며 고배를 마셨다.

이상화는 작년 11월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

에서 종아리 근육 미세 파열 부상을 입었고 현재 통증이 남아있다. 부상 여파가 막판 스피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피드스케이팅 기대주 차민규(동두천시청)는 남자 5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마지막 조인 11조 인코스에서 카자흐스탄 크레 로만과 경주를 펼친 차민규는 100m를 9초78(8위)의 다소 늦은 기록으로 통과했다.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막판 스피트에 나선 차민규는 34초94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금빛 포효 20일 일본 삿포로의 시라하타야마 오픈 스타디움에서 열린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키 남자 크로스컨트리 1.4km 개인 스프린트에서 우승한 김마그너스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